

홀리타임즈

40일

주님의 신부 수업

이다윗목사 지음



목차 CONTENTS

- 제 1 장 사랑의 예수님 _6
- 제 2 장 예수님의 기도생활 알기 _24
- 제 3 장 예수님의 생활 본받기 _48
- 제 4 장 나는 어디서 왔는가? _55
- 제 5 장 나는 이땅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_61
- 제 6 장 나는 어디로 가는가? _68
- 제 7 장 하나님의 속성알기 _87
- 제 8 장 삼위일체 하나님 알기 _103
- 제 9 장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 알기 _109
- 제 10 장 성경에 대해 알기 _116
- 제 11 장 성경묵상 나누기 _127
- 제 12 장 영성일지 쓰기 _133
- 제 13 장 골방기도 알기 _145
- 제 14 장 성막기도 드리기 _150
- 제 15 장 영의 기도 드리기 _163
- 제 16 장 하나님의 음성듣기 _176
- 제 17 장 권세자의 기도알기 _195
- 제 18 장 나의 상처 치유하기 _199
- 제 19 장 믿음 행하기 _208
- 제 20 장 성령의 은사 알기 _229



제 21 장	제자 삼기 _258
제 22 장	영적아비의 삶 알기 _267
제 23 장	거룩한 신부 되기 _272
제 24 장	십자가의 삶 살기 _306
제 25 장	회개 하기 _314
제 26 장	주님의 보혈 체험하기 _330
제 27 장	성령의 불 체험하기 _355
제 28 장	기름부음의 삶 유지하기 _383
제 29 장	기름부음을 유지하는 방법 _403
제 30 장	마귀의 정체알기 _411
제 31 장	지금은 마귀와의 전쟁이다 _425
제 32 장	귀신의 활동 파악하기 _441
제 33 장	마귀를 대적하기 _470
제 34 장	영광의 삶 살기 _478
제 35 장	영적 예배자의 삶 _489
제 36 장	믿음의 삶 살기 _496
제 37 장	사역자의 삶 이해하기 _516
제 38 장	교회의 질서 따르기 _523
제 39 장	영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_556
제 40 장	구제의 삶 이해하기 _576

1부

예수님을 따른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삶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아버지와 일대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일

/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해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우리가 전부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 스스로 뭔가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

실 때에도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형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첼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인데 이는 무엇과 '닮음'이나 '같은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그대로 닮으셔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과 똑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

에 얼마든지 죄를 지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시험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인내의 예수님

예수님은 온 생애동안 오래참으시고 인내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인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디므로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인내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यो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형은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형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당하신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주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 2:6-7)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기에 하늘의 모든 영화를 다 소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오히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

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
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지극히 누추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
으며 짐승 먹이통(구유)에 뉘이셨습니다.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
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눅 2:7)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가난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지 못한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구
유간에서 자녀를 낳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
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셨지만 부모를 위해
멋있는 집을 장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어
머니께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자식
이 십자가에 매달려 어머니 앞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신을 안치할 무덤조차 준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셨던 것
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임신을 했지만 마땅

히 자녀를 출산한 곳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용화장실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으니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입니까?

주님의 가난한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얻게 되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가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억울함이 다소 해결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희망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요 13:4-5)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겨 주는 일은 하인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땅은 맨 땅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에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에는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너무나 더럽고 모욕적인 것이어서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님, 도저히 이 사람의 발은 씻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인께 고할 때에 주인도 하인에게 발 씻기는 것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낮아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온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마 11: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위스>입니다. 이는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인정이 많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래 이 단어는 고트어의 <프뤼온>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는 '사랑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온유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잔인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향해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
니하며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마 12:19-20)

주님은 늘 죄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
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눅 7:34)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과 가까이 할 때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꺼려했으며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 2:17)

주님의 온유함은 참으로 크셨습니다. 주님은 은 삼십 세겔을 받고서 주님을 팔아넘긴 가롯유다에게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롯유다가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길 때에 군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가롯유다가 군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께 나아와 입을 맞쳤을 때 주님은 가롯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마 26:49-50)

어느 누가 주님처럼 원수된 자를 친구로 여기겠습니까? 주님의

온유함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시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군사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눅 23:34)

순종적이신 예수님

우리가 '순종'에 대해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예수께서 얼마나 하나님아버지의 음성대로 사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의 세 개의 구절은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

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 8:28)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49)

주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만을 사람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자의로 말하거나 가르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본 것과 들은 것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맘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주님의 순종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순종심이 어찌나 크시던지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가볍거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었기에 달게 지

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길 꺼려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
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

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 서신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드러주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의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최선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
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
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
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와의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골방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골방기도는 아주 간단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골방기도를 드리기 위해 새벽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시간을 이용하신 것은 홀로 한적한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셨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골방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골방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법이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골방기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즐겨 사용했던 기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방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골방기도를 하라고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벽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교회에 나아 함께 기도를 합니다. 비록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지라도 충분히 골방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골방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에 충분한 골방기도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릴 때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닳기

1. 예수님의 7가지 성품을 대답해 보세요.
2.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을 비교해 보세요.
3. 예수님의 성품을 닳기 위해서 당신의 결단을 이곳에 적어 보세요.



2 일

/

예수님의
기도생활
알기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한적한 곳으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적한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은 혼자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새벽기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새벽기도
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셨
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
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골방'은 헬라어 <타메이온>으로 '골방' 혹은 '밀실'로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을 말하실 때 그것의 의미는 홀로 거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윗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는 은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은 헬라어 <크뤼오토스>로서 '숨음', '은밀한', '비밀의'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도의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은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삼상 16:7). 하나님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면 '골방'기도를 하십시오.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골방'기도를 적극 권합니다. 그 어떤 추천도 예수님의 추천보다 더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결정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 6:11~13)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을 때 열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이 눈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날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만찬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 가셨지만 함께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성경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6~39)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따로 세 제자만 데리고 조금 더 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로 조금 더 올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기도만큼은 홀로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음 날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가롯유다가 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동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39절)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절)하시며 이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 지실 것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예수님은 너무도 간절히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셔야 할 잔이 너무나 고난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땀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강한 영광 체험을 하다 보면 어찌다 온 몸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의 기운이 돌
는 경우는 있지만 땀이 흘러 내린 경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도중 땀이 피방울처럼 흘러 내렸다고 했
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방울>은 피가 굳어 엉겼을 때 큰 덩어리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가 흘러 내린 것이 아니라 마치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피덩어리처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피가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땀방울이 떨어
지기까지는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그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마음을 정리하셨고
모든 고난의 길을 걸으실 것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 정욕에서 벗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의 정욕이 없으셨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영화로
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에 욕심이 있으실리 없겠
지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성인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요 6:14)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
니라”(요 6:15)

그 즉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마 20:28) 이 땅에 오신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체험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에도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했던 여인 과도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구애 받지 않고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

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 하셨던 이유는 기도란 그렇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눅 9:28~29)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영광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체험하는 동안 예수님의 옷은 빨래로 아무리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져 있었고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막 9: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광체험을 왜 지겨운 씨름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황홀한 기도를 왜 한 순간이든 마다 하셨겠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닦기

1. 예수님의 행하신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2. 당신의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드리신 골방기도입니까?
3.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하셨는데 당신은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3 일

/

예수님의 생활알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아버지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아버지께서 예수께 어떤 지시를 한 내용에 순종하셨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아버지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신 내용은 결코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 8:28)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와 대화를 자주 나누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간간히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삶에서 하루종일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사이에 하루종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는 사이에는 도무지 대화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을 쉬는 날에도 하루종일 대화를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루종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아버지와 간간히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만 듣고 그 말만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49)]

이 말은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와 감정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닮기

1.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령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행합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알아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령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생각해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서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성령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무시로 들을 수 있을까요?

2단계

구원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보다는 오히려 타락되고 변질된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아버지께 돌아가야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아버지께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믿음의 행실들은 천국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들 것입니다.



4 일

/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Image)과 하나님의 모양(Likeness)에 따라 태어났습니다(창 1:26, 히 12:9).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하나님아버지는 나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일정한 형상(image)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양(likeness)'을 지니고 계십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이는 외형적인 닮음을 말합니다.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인데 이는 내면의 닮음을 말합니다. 내면의 닮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내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 38:4-7, 잠 8:22-31, 요 1:6).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후에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잠 8:22-31)

위 구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욥 38:4-7)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렘 1:5, 갈 1:5, 엡 1:4-5, 롬 8:30).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 바울을 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1.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2.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들게 합니까?
3.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4. 당신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아버지의 형상을 닮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고 믿습니까?
5. 당신은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5 일

/

나는 이땅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사 43:7).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7)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태어났습니다(사 43:21).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찬양보다 나의 찬양을 더 듣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다시금 144,000명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144,000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며 거룩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오직 144,000명은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 그 누구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
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 14:3)

'새 노래'라는 것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이 나를 위해 부르는 찬양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만이 '새 노래'입니다. 이러한 '새 노래'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자만이 부를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은 곧 144,000인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 같기도 하며 거문고 타는 소리
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
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
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계 14:2)

이러한 사도요한의 '새 노래'에 대한 표현은 그 노래가 세상적인
노래와는 다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노래소리는 사도요한에게 있
어서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새 노래'가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
락입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영적인 노
래 또한 부르지 못합니다. 저들은 영적인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느
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노래 또한 즐길 수 없습니다. 이는 '새 노
래'의 특성이 지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노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방언'입니다. 바울은 방
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방언기도를 통해 영적인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

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

바울은 이러한 방언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보다 영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방언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방언기도를 많이 했던지 아예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이 가장 방언기도를 많이 했다 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4:18)

바울은 방언기도를 통해 방언찬양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방언찬양이 영으로 찬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찬양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녹음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바울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전혀 바울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5)

바울은 혼적으로 기도하는 단계가 있듯이 영적인 기도단계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혼적인 찬양단계가 있듯이 영적

인 찬양단계가 있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은 혼적인 찬양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육적인 노래 수준보다야 훨씬 뛰어난 단계이겠지만 영적인 찬양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단계일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알아야 보다 쉽고 빨리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 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장 뛰어난 선생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벧전 2:9).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3.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세상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찬양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 일

/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은 후에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100년 안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욱 가까이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전 7:4)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지를 알 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동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동산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을 거하게 하였고 에덴동산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에덴동산은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에덴동산이 행복했던 이유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을 불사불멸의 존재로 거하였습니다. 에덴동산에는 먹을 것이 충만했습니다. 아담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죽음도 없었으며 먹을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배필이 없었음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먹을 것이 풍족했으며 죽음의 걱정도 없었던 에덴동산은 그야말로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복천년

하지만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에덴동산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에덴동산의 문을 여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모두 불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
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 20:3)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모두 붙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
니다.

복천년 기간동안 이 땅은 에덴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
야는 복천년 기간동안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복천년의 상
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
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
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
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
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그
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
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65:17-25)

복천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복천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것과는 다릅니다. 복천년 때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모두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사야가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을 위한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황폐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황폐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 3:12-13)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모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두 무저갱에 갇힌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 땅이 에덴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천년은 천년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년은 영원한 나라이지만 복천년의 기간은 천 년입니다. 천 년동안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의 누릴 축복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복천년 때 누릴 축복도 큰 것이지만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천년 때 백 세가 되기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는 사람이라 일컬을 정도로 장수하는 삶을 누립니다(사 65:20-22).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각 개인마다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사 65:21).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여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복천년 때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사 65:23). 하지만 천국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복천년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천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사 65:18-19)

하지만 복천년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습니다. 복천년 때의 모든 누리는 복이 천국의 복에 대한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복천년 때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낙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낙원에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

낙원은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낙원'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복천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 천국의 예비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록 천국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미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곧 천국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육신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도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는 육신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가능합니다.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 12:7)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낙원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육신이 죽지 않으면 낙원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강도에게 '천국'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원'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천국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선

한 자는 낙원에 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선한 자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 10:9)

강도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낙원에 거하는 것은 곧 천국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복천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자신의 행실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낙원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음부에 거한 자들이 모두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

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계 20:13)

하지만 저들은 심판 후에 곧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계 20:14)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지더라"(계 20:15)

음부

음부의 개념도 낙원의 개념과 같습니다. 때가 되어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에 거할 자들은 지금 음부에 거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때가 찰 때까지 음부와 지옥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진정한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음부에 거한 자들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그때까지는 음부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였지만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눅 16:22-23)

음부에 거한 부자는 때가 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심판날에 부활한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유황불' 혹은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정 반대의 개념이지만 영원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영원하듯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
면 구원을 받으리라"(로마 10:9)

비록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 위대한 공헌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에 갑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와 내 가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다소 이기적인 말같지만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찌 큰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

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전부입니다. 다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1. 당신은 죽은 후에 당신의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까?
2. 당신은 '본향'이라는 말이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까?
3.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이 죽지않고 살아서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내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합니까?
4. 당신을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귀의 방해는 무엇입니까?
5. 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6.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3단계

하나님을 아는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단 한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그 문은 너무나 두껍고 무거워서 여간해선 잘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열기 위한 방안으로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르며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철야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좀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무엇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7 일

/

하나님의 속성알기

일방적인 사랑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이 일방적인 사랑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일방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랑은 서로 나눠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찌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눠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강압적인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먼저 오시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철부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와의 너무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큰 아들보다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탕자가 큰 아들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먼저 나아갔음을 말해줍니다. 혹자는 “목사님,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결코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단 한번도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아들과 탕자와의 차이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눅 15:17)

탕자는 배고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로 탕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지금껏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질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갔던 파렴치한 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여자화도 가까이 하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 오랜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런 삶의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탕자처럼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큰 아

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테니까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보고 당신에게 와 달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먼저 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먼저 나아가지 않으시지만 당신이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을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시지만 아주 멀리서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아주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만큼 아주 가까운 곳까지 찾아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문밖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당신 문 앞에서 계신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고 큰 소리 내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정중하고도 다정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그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때 주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욕과 혼을 버리는 조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당신은 오직 영적인 영역만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의 욕과 혼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버리십시오. 이것은 ‘먹음직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많이 먹는 ‘식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사역을 탐내는 것입니다. 남의 사업을 탐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보암직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사업체를 보면서 그 사업체가 탐이 나서 자신의것으로 갖고 싶다는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아내를 보고서 자신의 여자로 삼고 싶은 욕심을 말합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보고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괜히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자신보다 잘 살면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낮은 직책에 있으면 친구지만 나를 제치고 승진하면 원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내 남편이 먼저 승진해야 하고, 무조건 내 자식이 먼저 합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탐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지위에 대한 욕망과 권세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동네 반장이 되고 싶어하고 통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욕망입니다. 군수나 시장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세상의 최고 자리인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친구도 버리고 식구도 외면하는 인간이 이 부류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지위를 주고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마귀와는 교제를 나눌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속성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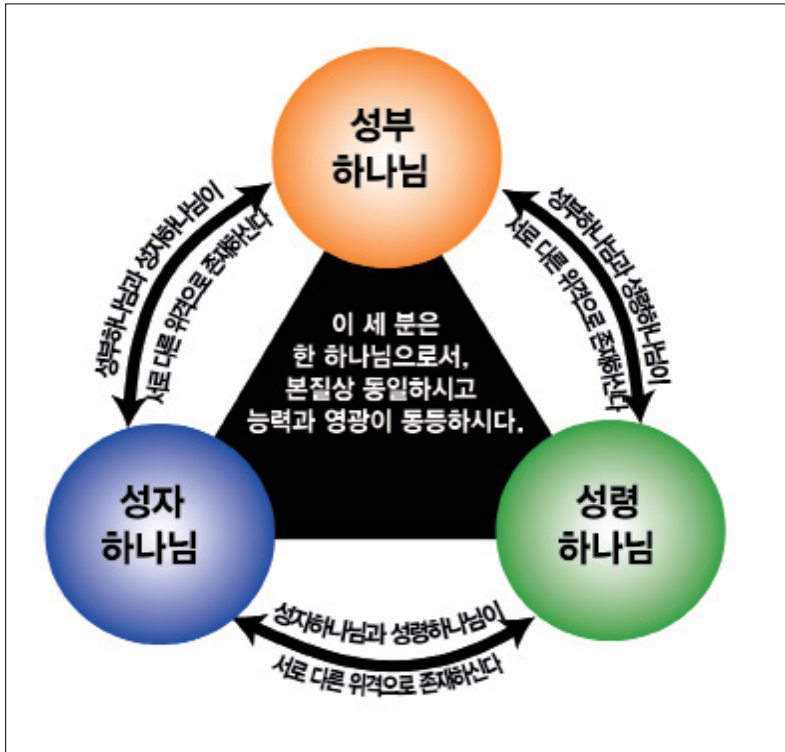
1. 당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지금껏 당신이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의 속성을 앎으로써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8 일

/

삼위일체
하나님
알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하나님'이라는 말은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적인 이론은 '삼위삼체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약성서와는 달리 신약성서에서는 세 하나님에 대해 뚜렷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6~17)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은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세례를 받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마태복음 28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19)

삼위일체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것 중 하나는 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하나님은 각각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부하나님이 성자예수님이 아니시고 성자예수님이 성령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요14:16~17)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 그리고 성령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 하나님은 각각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행 7:55) 보았습니다.

성자예수님과 성령하나님의 관계 또한 각각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요14:26)

성령하나님을 또 다른 형태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일체하나님의 동등성

오늘날 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조들 가운데 가장 권위있는 신조는 니케아신조(AD325년)와 콘스탄티노플(AD381년)입니다. 니케아신조에서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니케아신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리우스(Arius)파의 주장을 배격하기 위한 것인데 '성자의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신조는 니케아신조에다가 성령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예배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삼위일체하나님 이해하기

1.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2. 지금껏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3.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삼위일체하나님에 대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일

/

나와 하나이신
하나님
알기

세 하나님의 하나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10:30)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은 성부하나님 안에 성자예수님이 거하시고 또한 성자예수님 안에 성부하나님이 거하시는 매우 독특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 14:7)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성부하나님과 성자하나님께서 각각 서로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두 하나님께서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성부하나님께서 성자예수님 안에서 스스로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10)

이러한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의 하나되심에 대한 이해는 성자예수님과 성령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성자예수님은 성령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하나님 안에서 잉태 되셨으며 출생하셨습니다. 일생동안 성령하나님 안에 거하셨으며 성령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성부하나님과 성자예수님과 성령하나님은 각기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인간을 향한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로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성부하나님이 성자예수님이 될 수 없고 성자예수님이 성령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다만 함께 하나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도 삼위일체하나님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부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

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
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
서"(요 17:21)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셨
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실로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
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하셨으며 저들을 영화롭게 하셨
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하나님
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할 수 있
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삼위일체하나님과 관계맺기

1. 당신이 삼위일체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이 삼위일체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3. 당신으로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4단계

말씀과 동행하는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지 않으면 보낸 사람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함을 뜻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일

/

성경에 대해 알기

성경이란?

성경저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 구약성경: 약 30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 신약성경: 약 9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성경기록:

성경은 16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그렇게 긴 세월동안 성경이 씌여졌지만 성경 내용은 한결같이 구원의 계시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령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딤후 3:16).

– 구약성경: 대략 1000년 기간에 걸쳐 쓰여졌다.

- 신약성경: AD100 내에 쓰여졌다.

성경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다.

-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극히 일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졌다). 아람어는 포로시대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온 바벨론 지방의 언어이다. 포로귀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달리다굼"이나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같은 말은 모두 아람어이다.
-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된 언어가 "코이네"라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 차원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성경구조:

- 성경(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 모두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73절(구약 23,214절, 신약 7,959절)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의 장절(章節)

節 : chapters and verses of Bible)은 1555년 라틴어 성경 때 최초로 만들어졌다. 오늘날의 성경은 1560년판인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받아 드렸다.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명칭은 대략 2세기 말부터 불려졌다. 이는 모세의 언약(출 24:8)과 새언약(눅 22:20)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구약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내용이고 신약성경은 오신 이후의 기록이다.

성경역본 :

- 최초본은 모세의 돌판에 기록되었으며,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필사본을 기록하였다. 필사본은 인쇄술이 발명된 15세기까지(1455년 정도) 사본으로 각 지역에 전해졌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대의 사본은 대략 5천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 바티칸사본(B), 시내사본(a) 등이 유명하고 4-9세기 것으로는 대략 40여개가 된다.
- AD397년(카르타고 총회)에서 신약 27권이 구약 39권과 더불어 공식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히랍-유대인' 정경인 70인역(BC150): 히브리어 성경이 최초로 그리스(히랍)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 39권과 히랍어로 쓰여진 외경 7권이 포함되어 있다. 팔레스티나 유대인 정경(BC 90): 유대인들의 얌니아 회의에서 70인역본의 외경 7권을 배제시켰다.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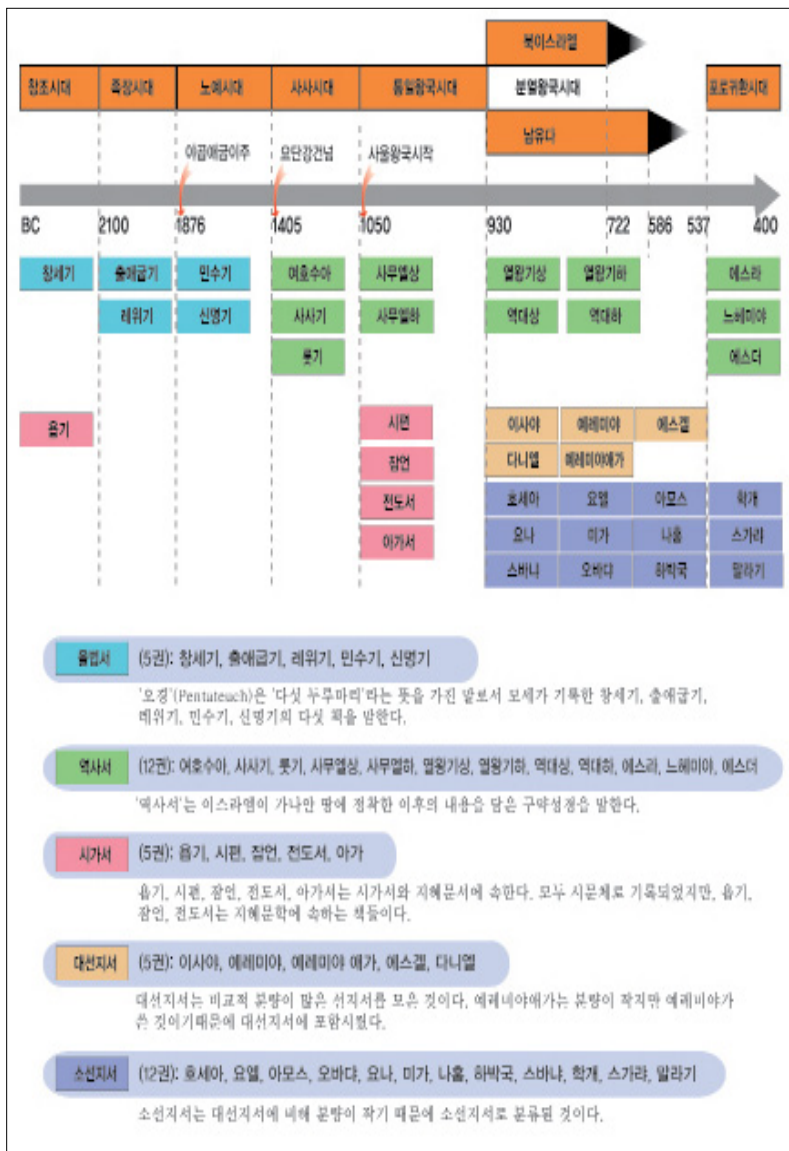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히브리어 39권만 채택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표준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와도 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요 5:39).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요 6:35).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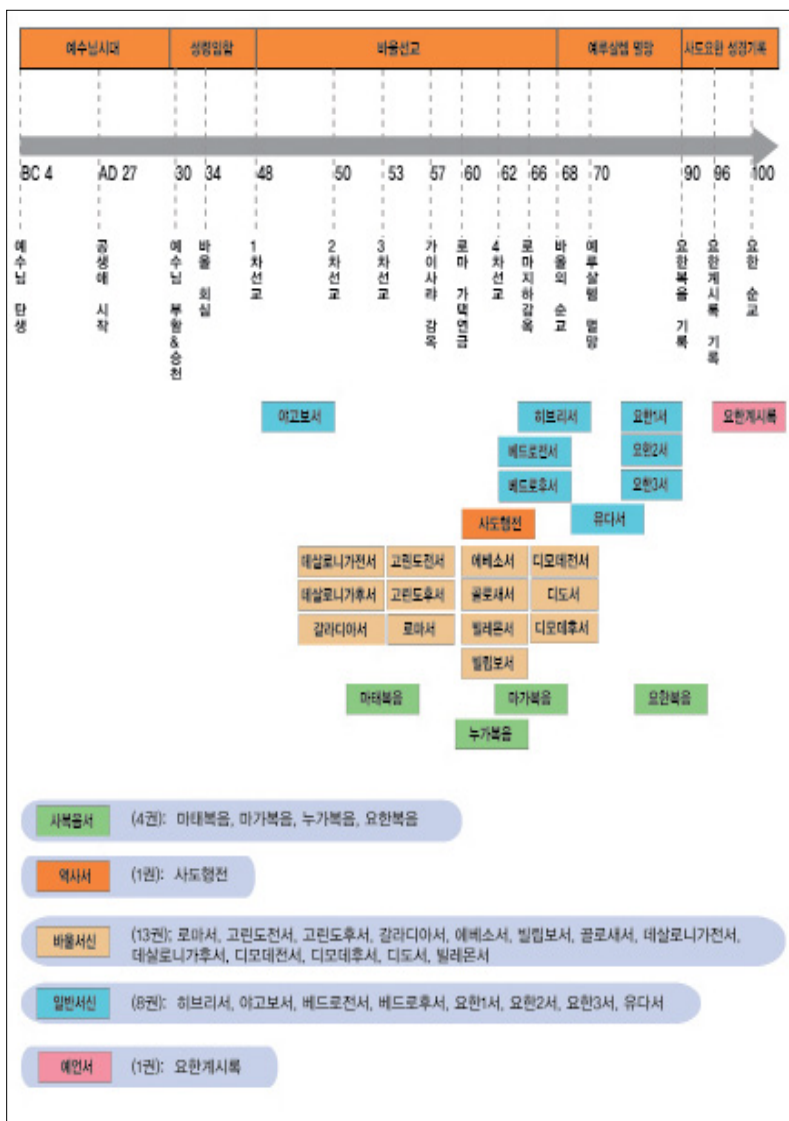
구약성경에 대해 알기



구약성경 구분하기

분류		성경	장수	약어	기록연대(BC)	기록저자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50	창	1450-1400	모세
		출애굽기	40	출	1450-1400	모세
		레위기	27	레	1450-1400	모세
		민수기	36	민	1450-1400	모세
		신명기	34	신	1410-1395	모세
역사서	신정시대	여호수아	24	수	1370-1330	여호수아
		사사기	21	삿	1000	사무엘?
		룻기	4	룻	1011-931	사무엘?
	왕정시대	사무엘상	31	삼상	1050-931	사무엘?
		사무엘하	24	삼하	1010-931	갓과 나단?
		열왕기상	22	왕상	561-538	예레미야?
		열왕기하	25	왕하	561-538	예레미야?
		역대상	29	대상	450-400	에스라?
		역대하	36	대하	450-400	?
	포로귀환시대	에스라	10	스	458-444	에스라
		느헤미야	13	느	420	느헤미야
		에스더	10	에	458-435	에스더
시가서		욥기	42	욥	구약시대때	?
		시편	150	시	1450-1000	다윗 외 6명
		잠언	31	잠	1000-700	솔로몬
		전도서	12	전	935	솔로몬
		아가	8	아	900	솔로몬
예언서	대전지서	이사야	66	사	745-680	이사야
		예레미야	52	렘	627-580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5	애	586-585	예레미야
		에스겔	48	겔	583-571	에스겔
		다니엘	12	단	605-530	다니엘
	소선지서	호세아	14	호	790-710	호세아
		요엘	3	욥	830-400	요엘
		아모스	9	암	760-753	아모스
		오바다	1	옵	848-841	오바다
		요나	4	욘	760	요나
		미가	7	미	735-698	미가
		나훔	3	나	663-621	나훔
		하박국	3	합	609-589	하박국
		스바냐	3	습	640-630	스바냐
		학개	2	학	520	학개
		스가랴	14	스	520-470	스가랴
		말라기	4	말	516	말라기

신약성경에 대해 알기



신약성경 구분하기

분류		성경	장수	약어	기록연대	기록저자
복음서		마태복음	28	마	50-70	마태
		마가복음	16	막	65-70	마가
		누가복음	24	눅	61-63	누가
		요한복음	21	요	80-90	사도요한
역사서		사도행전	28	행	61-63	누가
서신서	바울서신	로마서	16	롬	57	바울
		고린도전서	16	고전	55-56	바울
		고린도후서	13	고후	55-56	바울
		갈라디아서	6	갈	56	바울
	요중서신	에베소서	6	엡	62	바울
		빌립보서	4	빌	60-62	바울
		골로새서	4	골	61-63	바울
	재림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	살전	51-53	바울
		데살로니가후서	3	살후	51-53	바울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6	딤후	66-67	바울
		디모데후서	4	딤후	66-67	바울
		디도서	3	딤후	63-65	바울
	요중서신	빌레몬서	1	몬	60-62	바울
	일반서신	히브리서	13	히	64-67	?
		야고보서	5	약	45-49/60	야고보
		베드로전서	5	벧전	62-64	베드로
		베드로후서	3	벧후	62-64	베드로
		요한1서	5	요일	85-96	사도요한
		요한2서	1	요이	85-96	사도요한
		요한3서	1	요삼	85-96	사도요한
		유다서	1	유	60-80	유다
예언서		요한계시록	22	계	90-96	사도요한

성경에 대해서 알기

1. 성경은 모두 몇 권이며 구약과 신약은 몇 권씩 이뤄졌습니까?
2.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쓰여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해 보세요.
3. 구약의 시대적인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4. 신약의 시대적인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5.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6. "앞으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결단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11 일

/

성경묵상 나누기

하나님과 일대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성경묵상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는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똑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묵상은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출 25:22, 민 7:89).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마 27:51).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히 10:19-20).

우리는 성경묵상을 통해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5:39). 이처럼 성경묵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기도를 드립니다.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성경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준비기도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심령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작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십시오.

필요에 따라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성경묵상을 할 경우엔 찬양을 부르면 좋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처한 장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을 여러번 읽습니다.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정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독으로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며 본문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찾으십시오.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읽을 땐 보이지 않지만 주목하여 글을 정독할 때에 숨어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았으면 성경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여백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성경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묵상을 할 때에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김집사나 이집사에게 해당된 말씀을 잘 듣는데 정작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묵상 나누기

1. 성경묵상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2.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묵상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3.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묵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5. 성경묵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6.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묵상을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묵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요?



12 일

/

영성일지
쓰기

영성일지를 기록합니다.

성경묵상을 했으면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실천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영성일지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성일지를 씀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며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영성일지란?

영성일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영성일지는 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 하루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영성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일지도 하루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나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영성일지와 일기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기는 다소 세상적인 일상생활의 내용을 담는 것이지만 영성일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면 내면의 세계가 정리되고 다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영성일지를 쓸 때엔 심령이 열려지고 영혼이 정리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쓰여진 일기를 읽을 때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지만 쓰여진 영성일지를 읽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첫사랑이 표현되어 있지만 영성일지에는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읽을 때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하며 늘어짐을 못내 아쉬워하지만 영성일지를 읽을 땐 날마다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영성일지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영성일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영성일지는 '성경'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영성일지는 하나님과 나누는 데이트입니다. 주님과 데이트를 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주님의 모습만 봐도 즐겁습니다. 세상의 환란과 역경이 다가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힘이 납니다.

영성일지를 쓰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느낍니다. 손을 내 밀면 내 손을 잡을 것 같고 내가 기대면 어깨를 내 밀어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힘들어 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결코 주님은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늘 내가 잘했다고 하십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코스모스 길을 걸을 때 주님도 코스모스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넓은 들panse에서 두 팔을 벌리면 주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가지고 오셔서 내 불을 만져주십니다. 내가 그네를 탈 때에 주님은 내 등을 밀어주십니다.

주님과 나는 한 이불 속에 같이 잠을 잡니다. 일어나면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모닝커피를 마실 때 주님은 향기로운 커피냄새와 함께 내 숨결을 타고 들어오십니다. 운전할 때에도 주님은 안전벨트를 땀나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영성일지를 쓸 때 주님과 나눈 데이트 장면들이 떠오르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 더 이상 일기를 쓰고 싶지 않지만 영성일지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영성일지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영성일지를 보면 잠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후회합니다. 사랑의 흔적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영성일지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영성일지는 그렇게 '흔적'이 되어 나와 주님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영성일지 쓰기

1. 영성일지와 일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2. 영성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3. 영성일지는 왜 중요한가요? 당신은 앞으로 영성일지를 쓴다고 약속합니까?

5단계

기도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함을 토로했던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마 6:6). 골방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은밀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골방기도는 성막기도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성막의 성물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기도법인 성막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듯이 우리도 성막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13 일

/

골방기도
알기

주님께서 골방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주님께서 골방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는 골방기도가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드러지는 은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골방기도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 방해 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적어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1시간 정도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이어야 합니다.

주님도 골방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골방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거동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이는 그 어떠한 방
해도 없이 온전히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골
방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골방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갖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
하니라"(출 33:11)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 었더라"(민 7:89)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 편을 드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중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민 12:8)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요 10:3)

하나님의 음성은 큰 소리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왕상 19:11-12)

골방기도 이해하기

1. 왜 주님은 골방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셨을까요?
2. 골방기도의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3. 골방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14 일

/

성막기도
드리기

성막은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 대한 놀라운 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대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
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듯이 천국에서도 성막을 통한 정결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성막기도를 시작 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보혈을 뿌리셔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장소 주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나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곧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성막문을 통과하십시오

성막문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베실)로 짠 문입니다. 성막문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요 14:6). 앞서 설명했듯이, 성막문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기도의 장소와 당신 몸에 뿌린 다음 성막문에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막문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막문이 열리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막문이 열리도록 다음의 네 가

지 주님의 속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때 고백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막문이 열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자아를 죽이십시오

열린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헌신'을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죽이십시오. 짐승이 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지는 당신을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당신 대신 짐승이 태워 죽었지만, 지금 영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당신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가 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되십시오

번제단에서 헌신을 약속했다면 다음 단계는 물두멍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면 이미 당신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당신을 사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있을 것이며 당신 코에서 콧물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자가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삶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설병에서 간구하십시오

물두멍에서 회개가 이뤄졌다면 당신은 이제 정결케 된 것입니다. 이제 담대히 성소에 나아가십시오. 성소는 회막으로 덮혀 있습니다. 그 회막은 네 개의 천으로 덮혀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막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회막은 성막 안에서도 또 한번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막의 뜰은 누구든지 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헌신을 약속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 줍니다. 번제단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며 물두멍은 물세례를 의미합

니다. 비록 당신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령세례와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참경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경배자가 되려면 회막안의 성소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정금등대에서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주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사항을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금등대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 시간부터 영의 기도를 준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분향단은 너무나 중요한 성물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분향단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정금등대)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방언기도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

바울이 했던 이 구절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방언이 곧 영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영의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방언을 시작할 때는 우리의 의지로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방언을 받을 때는 의지보다는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었을 때 방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방언기도를 할 때는 의지적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작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방언을 하다보면 어느새 내 영이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인간의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

분을 연결시켜 주는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방언기도를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방언 기도를 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한 가장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해 보십시오. 속도를 빠르게 해 보십시오. "칼랄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방언찬양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언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영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사의 찬양소리를 듣게 되며 천사의 찬양소리를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방언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이 커짐을 느끼면서 고요함이 밀려 옵니다. 그렇게 방언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방언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천사의 찬양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황홀한 시간입니다. 영이 기뻐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환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이 커짐을 느끼면서 고요함이 밀려 옵니다. 그때 천상의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환상이 열리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별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난 후에 당신은 언약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다시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속죄소에서 다시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은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고요함을 느낄 때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 섰고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한번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소입니다. 당신은 속죄소에서 주님의 피를 뿌리셔야 합니다. 피는 당신 몸에 뿌리십시오.

처음 성막기도를 시작할 때는 손으로 직접 당신 몸에 뿌렸지만 속죄소 앞에선 당신 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입도 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 숨은 쉬셔야겠죠... 당신 육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찬양도 없습니다.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영만 활동하게 됩니다.

속죄소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면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개의 그룹이 당신을 언약궤로 내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궤를 지키는 그룹 사이를 통과하여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의 영은 기쁨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언약궤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입니다(히 9:4). 돌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입니다. 이를 가리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성경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말씀대로 들려 주실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롬 4:17)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롬 4장, 히 11장). 만나 금 항아리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당신이 언약궤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예수님의 치유의 빛과 성령님의 불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당신에게 밀려 내려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구름이 당신을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찬 것을 느낄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코를 통해 온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피부조직이 구름과 닿아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광선이 당신 심장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선은 그곳에 계속 비추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 광선이 작은 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당신 몸속을 휘집고 다니면서 당신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암세포를 태우고 더럽고 추악한 영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과 마음은 강건케 될 것입니다. 광선이 불이 되고 불을 아픈 부위에 옮기는 것에는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당신의 몸을 치유할 때 어느새 당신 가장 밑부분부터 성령의 불길이 치솟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 당신의 몸은 진동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당신은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과 빛과 불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영은 커져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의 기도의 시간은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기때문에 너무나 좋을 뿐입니다. 언약궤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아서 이곳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성막기도 체험하기

1. 성막기도의 순서를 교재없이 말해보세요.
2. 성막기도가 왜 강력한 기도인지 설명해 보세요.
3. 당신은 얼마나 성막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막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나 느낌은 어떠합니까?
4. 골방기도와 일반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차이는 무엇입니까?
6. 당신은 영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떠한 변화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7.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명령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성막기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골방기도와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5 일

/

영의 기도
드리기

영의 기도란?

영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와 '혼적인 기도'와는 달리 보다 영적인 단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기도는 다소 육적인 간구에 치중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간구하거나 문제해결을 놓고 떼를 쓰듯 간구하는 단계의 기도가 바로 '육적인 기도'단계입니다.

혼적인 기도는 육적인 기도 단계를 벗어나 다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수준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기도는 이러한 혼적인 기도 단계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서 기도하였을 때 모세에게는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를 드린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은 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했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행 10:9~11)

'비몽사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인데 이 단어는 '황홀함', '무아지경', 또는 '입신'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비몽사몽'이라는 단어를 '입신(tran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드릴 때 무아지경의 상태나 입신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 역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행 22:17)

신약성경에 <엑스타시스>가 단 두군데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쌍벽을 이뤘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렸으며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라 불렸습니다. 그런 두 사람 모두 '비몽사몽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중얼거린다고 해도 황홀해지지 않으며 아무리 큰 소리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황홀해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드린 기도는 바로 '영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저들의 능력은 모두 이러한 영의 기도에 의해 생겨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신 이유를 두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처럼 큰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체험을 하셨듯이 당신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영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체험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으며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골방을 찾으라

성막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골방'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골방은 히브리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이 말은 '곳간' '밀실' '내실'을 뜻합니다.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직 4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기도를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왜 굳이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독특한 단어인 '골방'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설명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강력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일평생 '골방기도'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골방에서 기도하라

일단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기도'는 곳 '영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은 우리의 육신이나 혼의 영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영으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천사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영의 골방에서 더욱 현실화됩니다. 물론 육의 골방에서도 성령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바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육의 골방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골방을 찾아서 그곳에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영의 골방의 활용

영의 골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5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아주 빠르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수준이 높은 단계의 기도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의 골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2-5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리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처에서도 언제든지 그 정도의 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바쁜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신은 홀로 있어야 합니다. 2-5분의 짧은 시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환경도 한적한 곳이면 최상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단절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의 골방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화장실도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냄새나고 다소 지저분한 장소이긴 하지만 영의 골방을 만들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일단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영의 골방을 자주 활용할 때에 이제는 뭔가 하고 있을지라도 영의 골방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의 골방의 효과

이렇게 영의 골방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처럼 영의 골방을 통해 성령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에 해당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확장되며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신유은사를 포함하여 각종 능력행함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한 예언과 영분별을 포함하여 방언과 방언통변의 은사가 확장됩니다.

더욱 귀한 영의 골방의 효과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기도는 오직 영의 골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의 기도 체험하기

1. 영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2. 베드로와 바울이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육의 골방과 영의 골방의 차이는 무엇이며, 영의 골방은 어떻게 찾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4. 만일 당신이 영의 기도를 드린다면 당신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6 일

/

하나님의
음성듣기

영광체험의 최고봉은 대화입니다.

모세는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민 7:89, 출5:22).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회막을 덮었으며 불기둥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비취졌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으로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속죄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심지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레 16:2)

모세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분명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속죄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없습니다. 오직 성전은 우리 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성전에는 번제단도 있으며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도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성령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물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혼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언약궤로 매일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도 받고 더 나은 영광 체험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들었듯이 당신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사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 평신도 아나니아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인 당신이 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요 10:3). 듣는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듣게 하는 마귀의 방해

육신의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2)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두 가지 사망이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망이며 또 하나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망에서 헤매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요일 3:8) 마귀는 죄를 이 세상으로 불러 드린 장본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 세상일에 분주한 사람입니다.
-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귀의 방해공작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혼(mind)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선입견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 조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 악한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 듣겠다는 위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영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 이뤄진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에 있어 전화로 통화하는 정도의 수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전화로 통화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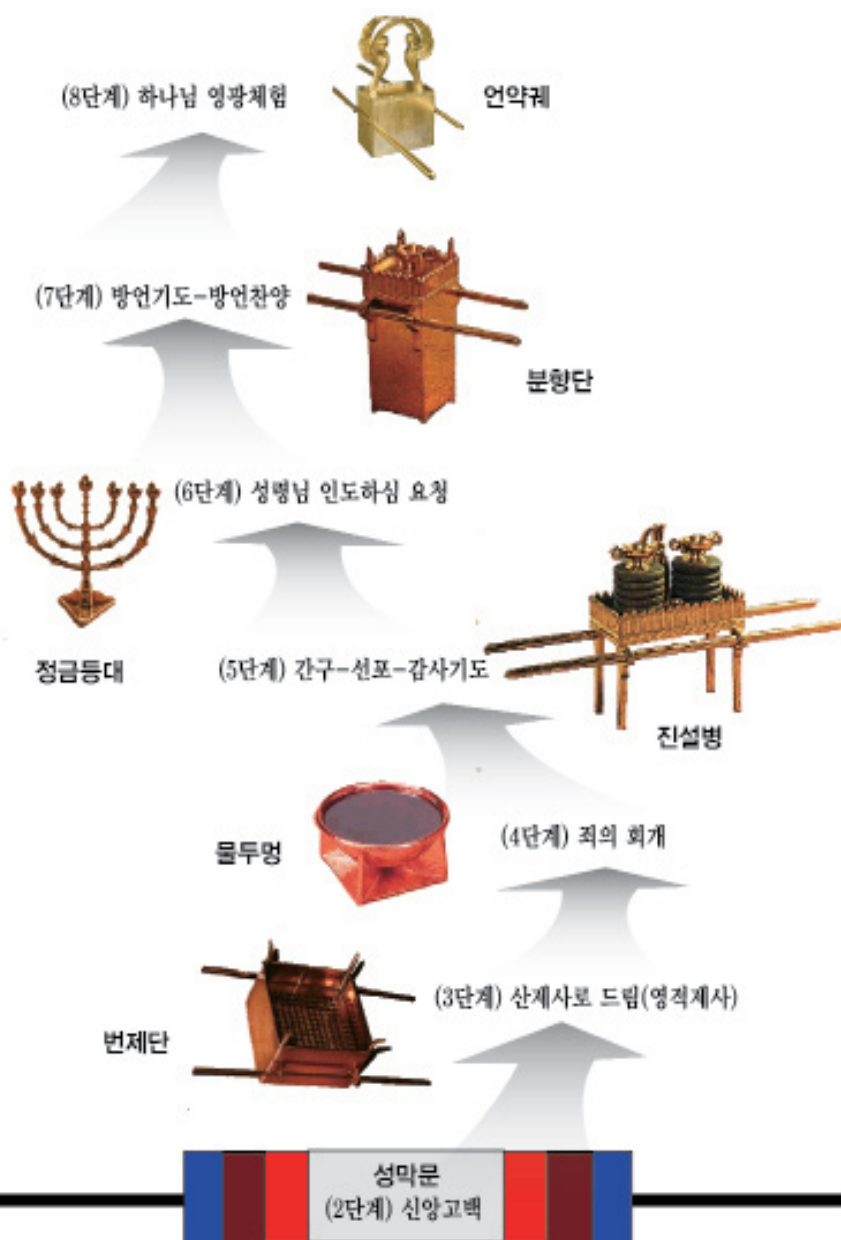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출 3:5).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수 5:15).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 산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 전통적인 형식과 방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듣기

1.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2. 당신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성막기도순서



6단계

권세자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우

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왕의 자녀도 물려 받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권세자의 기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달라 하는 간구의 기도는 권세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왕되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선포하며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권세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산을 향해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조금의 의심이 없을 때 그대로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할 때 가능합니다.



17 일

/

권세자의
기도알기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보다 더 권세있고 뛰어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의 자녀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듯이 왕의 자녀의 말에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권세자의 기도는 선포기도입니다.

권세자의 기도는 선포기도입니다. 무엇을 달라 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선포하며 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마 11:14). 워킹위드바이블의 '기적의 선포문'을 활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권세자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경우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자의 기도 이해하기

1. 왜 나는 권세자일까요?
2. 내가 권세자일 때 내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일까요?
3. 권세자와 믿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18 일

/

나의 상처
치유하기

마귀의 4단계 공격

1) 공격단계

마귀의 첫번째 전략은 '틈'입니다. 마귀는 우리로부터 '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허용합니다. 마귀는 죄와 함께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좋았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의심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의심은 마귀가 주는 첫번째 공격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첫번째 공격단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틈'은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완전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2) 침투단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틈을 발견한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으로 귀신을 집어 넣습니다.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시도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자녀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으로 하여금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격단계에서는 혼자서 회개하면 되지만 침투단계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적치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십시오. 아마도 이러한 선포문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이 선포문을 읽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거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3) 거주단계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 온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귀신이 거주하게 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엔 아주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봐야 합니다. 거주단계에 있는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기 자신이 귀신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지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음란의 영이 거주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활동할 때에 갖가지 음란 죄를 짓게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 중독의 영이 거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자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여간 해서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합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주단계의 귀신을 내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는 거주단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들어 앉아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성질만 돈구는 역할을 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성령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사역자에 의해 비록 그 삶 안의 귀신이 떠나갔을지라도 다시금 떠난 귀신이 또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떠난 귀신이 더 큰 귀신 떼와 함께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
게 되리라"(마 12:43~45)

4) 묶임단계

우리 안에 거주한 귀신은 완전히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합니다. 성
경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귀신들림"이라고 말하거나 "사로잡힘"
이라고 표현합니다. 묶임단계에 놓이게 되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
로잡힌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통제뿐만 아니라 죄 인식마저 못
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 모양은 완전히 마
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력한 성령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귀신을 쫓아
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 내실 수 있습니다. 성
령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귀신들은 성령님의 권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빠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옛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집은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바뀌었을 것이
니까요.

상처치유의 과정

1) 상처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적치유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드러나기를 싫어하거나 꺼려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치부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치유가 있기 위해선 상처자는 자신의 상처를 인식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2) 상처를 고백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더 큰 상처를 가져오게 하며 더 악한 상태로 만듭니다. 물이 고이면 그 물이 썩듯이 상처가 남아 있으면 그 상처는 쓴 뿌리가 생겨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이러한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선 그 쓴 뿌리를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시 71:13, 시 13:1).

상처의 치유는 토설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토설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님이 아닌 인간에게 한다면 진정한 상처치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상처치유자는 오직 예수님뿐 이십니다. 내적치유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적치유

자는 상처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3) 상처치유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처자가 자신에게 피해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이해하는 마음에는 피해준 사람도 자신처럼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자들은 늘 자기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 역시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용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와 만남이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고서 못을 박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십자가와의 만남이 있을 때 영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동안 자신을 묶어댄 나쁜 영과 악한 영들과 이별을 선언합니다. 상처자 안에 더러운 영은 빠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사[逐邪]'라고 합니다.

축사 작업이 일어날 때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영혼의 상

쳐가 치유됩니다. 이러한 상처치유는 단순한 치유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자를 사역자로 변신케 하는 작업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령사역자 중에는 이전에 상처자였거나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상처 치유 방법 알기

1. 상처의 주범이 되는 것들을 말해 보세요.
2. 마귀의 4단계 공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 상처치유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4. 혹 내게 마귀의 악한 영들이 침투해 있지는 않습니까?
5. 당신은 어떻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19 일

/

믿음
행하기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도 믿음이 천국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믿음’에 대해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바다에 던지울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 6:30).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했던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자보지 못하였노라”며 칭찬하셨습니다(마 8:10). 바다의 풍랑을 보고 죽을까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고 책망하셨습니다(마 8:26).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병든 친구를 침상채 들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마 9:2).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 당한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 9:22)고 말씀하셨습니다.

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으며 (마 9:29), 이방인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딸의 병을 치유받기 원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5:28).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다”(눅 17:6)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이 천국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천국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꾸만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 14:31)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지만 의심은 지옥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심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의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이 99%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 1%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

입니다. 의심 1%는 믿음 99%를 없애 버리는 ‘누룩’과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갈 5:9)고 말하면서 누룩의 파괴력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누룩과 같아서 그 크기는 아주 작고 처음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하찮은 누룩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누룩’은 곧 ‘의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약 1:6)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7)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조그마한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구하면서 ‘그것이 과연 될까?’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이뤄지지 않는 응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그마한 의심’의 파괴력입니다. 당신 안에 1%의 의심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100%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100%의 믿음은 믿음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1mm도 채 안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의 성분이 강력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나중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100% 이뤄질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천국의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9:23).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1:23).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믿음의 실체를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리켜 ‘정조’나 ‘의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오래도록 이 구절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완벽하게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매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나를 믿으세요(Trust me!)”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장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도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셀 수도 없이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도 “나를 믿으세요”라고 했으며, 아내에게도 수없이 사용했고 자녀에게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으세요’의 말에 담긴 ‘믿음’은 있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믿음은 뭔가 있는 것을 놓고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뭔가 보여지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성경의 수없이 많은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믿음’에 대해 바로 이해하기는 힘이 든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빼고 나면 그리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처럼 ‘믿음’은 그야말로 중요한 단어이지만 정작 ‘믿음’을 지니고 있 기란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형제가 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물어 왔습니다.

“목사님,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상이 되며, 보지 못하는 것 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형제에게 ‘믿음’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보여줬고 설명도 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그 형제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았습니 다. 이처럼 믿음은 듣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말로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믿음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 드리는 것조차 힘이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애인에게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믿음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정조를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애인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애인에게 자신의 정조를 믿어 달라고 했지만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9개월 동안 뱃속에 간직했다가 힘든 고통 속에서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를 애지중지하게 키웠단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믿어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미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을 낳았고 정성껏 길렀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역시 성경적인 믿음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라는 것들’을 빼고 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ct, substance’입니다. 이 말은 곧 ‘사실, 혹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사실로 받아 드러질 때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때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과 실제적으로 다가서는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껏 단순히 그 사실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창 1:2)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 당시 땅은 혼돈했습니다. ‘혼돈’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무런 형태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공허’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허는 ‘empty’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을 때의 그곳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

을 말합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곳에 ‘흑암’이 있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뭔가를 이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의 큰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법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천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빼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습니다.

“믿음은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뭔가에 대한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로 사용되는 원문의 단어는 ‘엘렝코스’인데 이 말 속에는 ‘proof’ 나 ‘evidence’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Evidence 는 주로 법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뭔가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죄인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유죄라는 사실을 들춰낼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선 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증거해야 하는데 그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믿음’과 천국의 ‘믿음’과 다른 점입니다. 천국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에 거할 자격을 상실당한 셈입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지

만 뭔가가 보인다고 말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인데 세상에서처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질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노력없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알기

1.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2.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3. 왜 의심이 믿음의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것일까요?
4.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임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5. 당신은 의심없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20 일

/

성령의 은사 알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고전 12:8~12)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모두 9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24가지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일 수도 있으며 99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성령의 은사는 단 한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은사의 숫자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변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에 나눠

주시느니라”(고전 12:13)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일정분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교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gift)임이 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얻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받을 것이고 찾게 되며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눅 11:9~10)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세례’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며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은사 중 하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했으며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때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

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병이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졌고 얼마든지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 9:23)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행할 수 없는 부족한 믿음이 문제이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성질입니다. 비단 믿음의 은사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은사의 성질은 다른 모든 은사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놓고 성령의 열매가 27가지이거나 혹은 24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모든 설명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

령의 9가지 은사만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나는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습다. 어떻게 말하지도 않는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어 봅시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단 2:23)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단 2:30)

다니엘의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계속해서 ‘지식(야다)’을 말하지 않고 ‘지혜(호크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속 마음을 알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과 권능입니다. 권능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중 일부분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권능 중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어교과서가 영어를 배우게하고 수학교과서가 수학을 배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저들은 성경을 학습지처럼 읽습니다. 성경을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정도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반드시 읽어야할 필독서 목록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필독서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뜻에서 그리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은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에 관한 내용을 찾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 당신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

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상고’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다, 수색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어찌면 우리는 성경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열심히 수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육적(body)으로 읽거나 마음(mind)으로 읽는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은 영적(spirit)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9~10)

이미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이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실 때 성경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령사역자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혜의 말씀’을 성경을 아는 지혜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정보 습득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된 것도 정보습득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지식의 말씀’으로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해석되던 간에 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던 간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은 은사 중의 최고의 은사입니다. 모든 다른 은사는 믿음이 없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 자체가 믿음 없이 주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것이며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그 사실들을 믿지 않으면 ‘지식의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병 고치는 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병을 치료한다면야 믿음이 없어도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치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지금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성령님의 하신 말씀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옮았음을 매번 체험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예언을 할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 통변을 할 때에도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소성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병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단 한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복음이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시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낼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3년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 단 한차례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교리는 이단적인 것입니다.

외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애굽의 이민 생활을 하시는 동안 죽은 새를 살렸다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새를 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

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공생에 기간 동안에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사셨고 인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단 한번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동생들을 위해서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렇담,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심으로써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 11:41)

왜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만을 사용해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은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으며 바울 역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능력 행함

능력행함의 은사에는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평범한 이빨을 금이빨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평범한 이빨이 점점 금이빨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빨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금이빨 뿐 아니라 금가루나 돈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기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사역 도중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성령사역자는 4시간 걸릴 길을 1시간도 안 되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야 할 기름병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도 있고 없어져야 할 빵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갓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돈을 챙기는 성령사역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 어라”(마 10:8)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보다는 겸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귀신을 사랑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예언함

예언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혹은 나라에 대한 앞 일을 말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 닥칠 일을 미리 예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장하였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전 14:1)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린도교회에 가급적이면 예언을 사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고전 14:24~25)

성령사역자들은 예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상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환상을 보는 것이 아주 빠르고 쉽게 상대방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선입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들어가면 잘못된 예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예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입견이 묻어 있는 예언보다는 차라리 눈을 가리고 하는 예언이 좋기 때문입니다.

영들 분별함

바울이 이곳에 ‘영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교회는 이 은사를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구분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교인의 영적상태를 일곱단계로 구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 역시 잘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판단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습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2)

바울이 이곳에 언급하고 있는 ‘영들 분별함’은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냐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

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내적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내적치유에 사용되는 적절한 은사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감동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며, 환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게 되면 영체의 오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병이 들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오감 중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귀가 막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모님은 젊었을 때 자동차 사고로 20미터 정도 하늘을 날아본 경험이 있는 후론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감 중 하나를 잃은 것이지요.

오감에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러한 오감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영체가 발달됩니다. 마치 육체가 느끼는 것처럼 영체도 함께 느낍니다. 영의 발달이 잘 된 사람은 육체가 느끼는 감각보다 영으로 느끼는 감각이 훨씬 강해지기도 합니다.

영체가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입니다. 청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각으로 환상을 봅니다. 후각으로 영적 냄새를 맡습니다. 죽은 자에게 나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가 하면 꽃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 니코틴과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똥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영적 미각이 발달하게 될수록 우리의 입은 세상의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입만 열면 음담패설과 비방, 비판, 저주, 욕설이 가득했지만 영체로 변하게 되면 복음이 나오고 사랑스런 말만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이 품어져 나옵니다.

영적 촉각은 온 몸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실제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 옆에 가면 손에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며 손에 화기(火氣)를 느낍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머리가 아파오거나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납니다. 카지노가 있는 곳에 가면 온 몸이 부어 오르거나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만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영체는 속한 것에 따라 민감합니다. 하지만 영체는 속한 것에 따라 민감해 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체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면 살인과 저주, 욕설과 비방, 음란과 파괴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에 속해 있는 자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막 7:2~3)

각종 방언 말함

바울은 영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방언기도를 어느 정도 사모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4:18)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방언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면 방언기도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 여러가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방언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글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내게 방언을 가르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내가 언급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천국은 실제의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천국의 삶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함입니다.

“목사님, 꼭 방언을 해야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통해 천국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하지 않고서도 천국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영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영의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영의 기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성막 하나만 살펴보다라도 그 안에 영의 기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막에서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반사람을 포함하여 대제사장조차 열წ도 못한 속죄소였지만 모세는 매일 원하는 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기도를 권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곳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일일이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찾기란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쩌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상하면 곧바로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제젠 ‘이단’ 명패가 1주일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방언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멀고도 힘든 길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방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방언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에게 대한 기록이 단 한번씩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황홀한 경지에 이르는 영의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장 ‘예수님의 기

도생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번 언급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자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딱 한 번 새벽기도를 하신 것이고 딱 한 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셨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생활에 대해서는 6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방언들 통역함

바울이 ‘방언들’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방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언방언, 대신방언, 대물방언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대언방언입니다. 적어도 15개의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언방언을 듣고 자기 나라 말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행 2:8)

이것이 대언방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되고 운

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좀처럼 이런 대언방안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는 대신방언이 있습니다. 대신방언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뤄집니다. 요즘 하는 방언의 대부분은 대신방언입니다.

대물방언은 자연계나 생물을 통해 하는 방언입니다. 자연계의 소리를 듣고 짐승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짐승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언입니다.

이 외에도 선포방언이나 계시방언 혹은 설교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통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 방언에 한 문장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수십 문장으로 통변 될 수도 있으며 여러 문장이 간단하게 통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세계입니다.

통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이 영으로 하는 것일진대 통역이 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통역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때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통변을 할 때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환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환상이 보여지는 것은 영으로 통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알기

1.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재를 안 보고 대답해 보세요.
2. 성령의 은사가 당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권세자로서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7단계

영적아비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사명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유언과도같은 위대한 사명을 실천할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세례 받게하고 교회 잘 다니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자녀를 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듯이 그러한 자녀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스승은 많지만 영적아버지는 적습니다(고전 4:15). 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삼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아버지입니까? 당신의 영적자녀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영적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까?



21 일

/

제자
삼기

위대한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계명(the Great Commandment)'과 '위대한 사명(the Great Commission)'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출 20장). 예수님은 모세의 십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함축시키셨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요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님의 계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계명'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명'을 잘 지키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위대한 사명'은 선교사나 목사들이나 하는 사역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계명'을 주셨듯이 모든 성도에게 '위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계명'도 지켜야 하지만 결코 '위대한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삼기의 대가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제자훈련을 잘 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오직 12명의 제자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위 '제자훈련'의 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전파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칠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도 제자훈련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동은 온전히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2천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게 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삼음 때문이었습니다.

제자

삼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제자로 삼을 때 기본적인 단계는 1)복음전파하고 2)세례를 받게 하며 3)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삼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계속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수많은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 삼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 수가 놀라운 속도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세가지 영적관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너무나 환란과 역경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나 세상의 방해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악한세력의 공격은 신앙 좋은 성도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영적관계'는 견고한 신앙

생활을 위해 매우 귀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이 세가지 영적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악한세력의 공격을 막고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멘 삼기 :

이것은 "영적멘토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멘토가 필요합니다. 영적멘토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영적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멘토가 있으면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멘토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며 영적멘토의 중보기도를 통해 실족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멘토는 담임목사님이 될 수 있겠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영적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영적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영성을 인도해 줄 분은 영적멘토의 자격이 있습니다.

영자 삼기 :

이것은 "영적자녀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당 12명의 자녀를 삼길 원하십니다. 1년에 2명의 자녀를 삼을 때 6년이면 12명의 자녀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자녀와 평생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자녀를 삼는다는 것은 '영적아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영적아버는 스승과 다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영적 아버는 삶을 보여줍니다. 스승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어렵지만 영적아버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영작 삼기 :

이것은 "영적짜공을 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짜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둘씩 짜지어서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영적짜공이 있다는 것은 외롭지 않음을 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시련과 환란이 닥칠 때 쉽게 주님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영적짜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이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짜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다 떠는 것 같아도 영적짜공과는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수다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영적짜공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며 마음 속의 고통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삼기

1.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2. 주님께서 제자삼으라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껏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까?
4. 당신은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22 일

/

영적아버지의
삼
알기

영적아버지와 스승의 차이

바울은 이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영적아버지는 적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이는 사람들이 스승은 되고 싶어하지만 영적아버지는 되고 싶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르치는 것 이상의 부담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부담까지는 지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준비는 해 주지만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묶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아비란?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명하셨을 때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잘 다니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음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온갖 헌신을 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이 영적아비가 되는 삶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자녀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자녀는 당신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학력 소유자일 수도 있고 배움이 적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자녀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 자녀의 필요사항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긴 세월동안 저들과 함께 동거동락 하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겨우 일주일에 한 두 시간 할애해서 제자를 삼고 있을 것입니

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겨우 음식값을 지불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계시면서 12명의 자녀를 본 셈입니다.

어떻게 영적자녀를 삼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영적 자녀를 삼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사 61:3)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자녀를 찾지 마십시오. 슬픔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 자녀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영적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 사람이 삶의 환란으로 고통받으며 마음에 슬픔이 있고 영적 절망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영적아버의 삶 살아가기

1. 영적아버와 스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예수께서 진정한 영적아버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지금 당신에게는 몇 명의 영적자녀가 있습니까?
4. 당신은 어떻게 영적자녀를 삼을 계획입니까?
5. 당신은 영적아버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영적아버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당신도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23 일

/

거룩한 신부 되기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좋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가득차 있다면 우리 역시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이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 6장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엔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실인 서원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어 '나실인 서원'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지냈을 때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후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나 하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세상의 종살이나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세상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미 성막의 제사장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나실인 서원을 다시금 실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갔으며 이는 일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나실인 서원과과는 다르게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지르>입니다. <나지르>라는 단어는 '성별된 자', '분리된 것', '떼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를 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실인 제도는 누가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자원하여 행하는 것이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실인 제도를 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의 규율

나실인 서원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민 6:2-8)

나실인은 남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가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결단하는 자는 일정 기간동안 금지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기간동안에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않았습니다(3절). 또한 포도나무 씨나 껍질도 먹지 않았습니다(4절). 둘째,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5절).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기간동안에는 절대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셋째,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6절).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7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나실인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나실인 서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 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민 6:12)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제사장들도 나실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들에게는 부모형제가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에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민 21:1-3)

하지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부모와 형제의 죽음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의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레 21:10-11)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세 가지 규율만 있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했던 나실인의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율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모든 규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단 지파의 마노아라 하는 자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전하며 그 아들로 하여금 "결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삿 13:7)

하나님의 사자는 포도주와 술을 금한 것 외에도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덧붙였습니다. 이는 나실인은 포도주와 술 외에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나실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나 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어떠한 세상의 정욕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갖고 사는 자는 부정한 음식을 금할 의지가 없습니다.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뜻합니다. 모든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세우신 나실인이었지만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의 서원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멋을 추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철저한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의 시신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모나 형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세상의 큰 슬픔 가운데서도 곳곳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매우 단호하게 "나를 따르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모가 죽었기에 장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마 8:22)

어떤 제자는 제법 큰 부자이지만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마 19:21)

오늘날에도 나실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도요한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일 5:19)

세상과 구별하여 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신부의 삶 이해하기

1.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3. 세마포는 어떤 옷이며세마포는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
입니까?
4. 당신은 주님의 거룩한신부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8단계

십자가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주

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며 나를 살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단의 삶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연단과 인내를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24 일

/

십자가의 삶
살기

원죄의 파괴

원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롬 5:19). 아담을 통해 원죄가 생겨났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 원죄는 파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원죄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원죄에서 자유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원죄는 파괴되고 막혔던 벽은 무너졌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당신의 원죄가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싶

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롬 10:9-10). 이로써 당신을 사로잡았
던 사망은 달아나게 됩니다. 지옥의 권세는 당신을 사로잡지 못합
니다. 이제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만이 떨어지는 장소
가 될 것입니다.

비록 원죄에서 해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
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구원에 영향
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원죄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다
음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시금 그 원죄가 저들을 옴아 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
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
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
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 6:4-8)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은 정결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요소입니다. 회개가 그것이고 주의 보혈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회개는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죄 씻음이 있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해 줍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어떻게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기 위해 모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 제일 무서운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은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

성이 사는 고센땅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죽은 장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피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출 12:23)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양의 피가 그런 효력을 낸 것입니다.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홀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요일 1:7, 엡 1:7).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계 1:5)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십니다(골 1:20).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예수님은 몸소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은 끝이 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모든 피 흘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피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기 위해 먼저 당신의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줍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속죄소입니다. 우리는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피를 뿌렸으며,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송아지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레 16:15)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없이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님은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
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9)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
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은 하
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
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니라"(히 4:16)

속죄소를 통해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 이해하기

1. 원죄의 파괴는 어떻게 해서 가능케 된 것일까요?
2.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3. 당신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당신 또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25 일

/

회개
하기

죄의 카테고리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안겼던 마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간을 죄 속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body)은 육신의 오감(five senses)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도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이것은 죄에 대한 핵심을 지정한 말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카테고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요일 5:19)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
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자기 세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아직도 이해하
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도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죄를 범하는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할 것이며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당신과 예수님 사이의
가로 막는 벽입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
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2)

회개의 순서

1) 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은 회개의 단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살인의 큰 죄를 범했더라도 조금도 죄를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을 큰 죄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온전한 회개를 낳게 합니다.

2)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죄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겨납니다.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회개를 잘 하기 위해선 마음에 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3)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회개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4)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께 보상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더 많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죄는 사람에게 보상하십시오. 물건을 훔쳤다면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음을 했다면 간음에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간다면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파십시오. 죄와 함께 사는 집보다 죄 없이 사는 길바닥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남을 속였다면 속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근무시간을 어겼으면 어긴 시간만큼 일을 더 하십시오.

모세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온전히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보상'은 원래의 것에 1/5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 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민 5:7)

보상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가해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것 다섯을 취했다면 다섯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모세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출 21:23-25)고 명령한 것입니다.

5)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받기 전에는 온전한 회개가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용서를 바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8)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 스스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6) 죄를 버림이 필요합니다.

지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에는 죄의 반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똑 같은 죄를 다시금 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는 현재를 지켜 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오직 현재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과거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성자가 될 수 있음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죄는 완전히 죄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도박, 마약, 음행 등 습관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혹 당신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단계를 잘 이행했다면 습관적

인 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습관적인 죄를 없애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죄를 인식하는 것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버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인식할 수도 없으며 죄에 대한 고통과 죄의 고백은 물론이고 죄에 대한 보상과 용서,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의 삶 이해하기

1. 죄의 카테고리는 무엇이며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 봅시다.
2.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회개의 순서를 설명해 봅시다.
4. 당신은 날마다 지은 죄(자범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순서에 따라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26 일

/

주님의 보혈 체험하기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은 정결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요소입니다. 회개는 그것이고 주님의 보혈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회개는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죄 씻음이 있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해 줍니다.

"그 아들 예수와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
실 것이요"(요일 1:7)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바라보기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은 보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십자가가 보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박혀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다음 손과 옆구리와 발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주변에 아무런 십자가가 없다면 마음 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든 놋뱀 장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띤 놋뱀 장대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죽음을 면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 다본즉 살더라”(민 21:8-9)

모세가 치켜 든 놋뱀 장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역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이해하기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도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선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으려면 당신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당신이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믿겨지지 않을 땐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을 때 당신의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당신은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당신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당신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일생에 한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정결 그 자체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당신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세상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으시고 안목의 정욕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 거리도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거듭 태어나십시오.

주님의보혈 체험하기

1.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의 보혈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요?
2. 당신은 주님을 실제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4. 당신은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9단계

성령충만한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외롭게 놔 두
고서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신대
로 하나님께서 성령하나님을 곧 제자들에게 보내주셨
습니다. 이렇게 성령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거하게 되
셨습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
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의 기름부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부음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존
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성령충
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7 일

/

성령의 불 체험하기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성령의 불’에 대한 관심을 가져 봤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한번도 들은 적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충만’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성령충만이란 말이 하도 많이 남용되어서 “성령충만 합시다”라고 말하면 그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충만이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윗 구절에서 언급된 성령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불세례를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을 때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령세례를 받을 때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부으심에는 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구절을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한 성령세례가 아니라 성령충만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
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세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말하며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은 성령과 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임을 알았

습니다. 성령세례가 물세례보다 더 중요하듯이 불세례는 성령세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다르듯이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세례도 중요하지만 불세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세례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세례에는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세례는 성령의 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세례는 성령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세례를 이해한다면 성령세례 또한 이해할 것입니다. 물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이고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육체적인 것이라면 성령세례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세례는 물세례도 아니고 성령세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상으로 볼 때 성령세례는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막의 뜰은 참경배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았다고해서 참경배자가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없이 갑자기 불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야 하듯이 불세례를 받기 위해선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성령세례가 번제단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불세례는 지성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세례가 참경배자의 준비조건이라면 불세

레, 즉 성령의 불은 참 사역자의 조건입니다. 물세례가 물로 행해지는 것이고 성령세례가 성령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불은 기름부음으로 행해집니다.

성령세례에도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세례를 통해 어떤 이는 방언을 하며 또 어떤 이는 예언도 합니다. 하지만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겐 그 이상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신유의 은사에도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것을 똑 같은 길이로 펴주는 치유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는 치유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세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함의 근원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
는 바와 같으니라”(살전 1:5)

믿으십시오. 성령에는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성령세례와 함께 성령충만함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과 전

성령님은 성경에서 자주 불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NIV(New International Vision) 영어성경에선 성령을 가리켜 “the fire of spiri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했으며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들은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의 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례를 물로 주는 세례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세례에다가 <불세례>를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
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
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왜 세례요한은 자신의 물세례에 비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
례를 주신다고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세
례요한은 물세례만 행했습니다. 물세례를 통해 죄사함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세례를 주었습
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
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
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
한의 세례로라”(행 19:2-3)

사도 바울로부터 성령세례를 받게 된 에베소 제자들은 그 즉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세례는 큰 능력을 발휘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세례의 본질적인 요소는 <주님을 믿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때 성령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
세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을 살게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성령의 불의 증상

만약에 당신이 육의 기도를 지나 혼의 기도를 거치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체험이며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나 투시의 은사 같은 것도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은사가 임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당신 자신조차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간구하지는 마십시오. 간구는 육의 기도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에서는 오직 평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종의 감전된 느낌이나 떨리는 느낌이나 뜨거운 느낌 같은 것은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

겠습니다.

성령의 불의 증상은 떨림과 감전된 느낌이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느낌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증상의 종류를 나열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앓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사용할 때 산이 바다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마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것이며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아무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한 성도나 특별한 집사, 권사, 장로 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어찌 나 같은 자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불 이해하기

1. 성령의 불과 성령세례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2.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3.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성령충만한 삶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28 일

/

기름부음의
삼
례
유지하기

주님의 사랑을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인간 그대로의 성품으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부음’입니다.

기름부음은 거듭남보다 더 큰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지만 기름부음은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거듭남은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구분됩니다. 물세례는 육체적인 거듭남이지만 성령세례는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예수께서 언급한 ‘물과 성령’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세례에 대해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장면이 소개되었습니까?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후 곧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던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이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성령세례’가 ‘물세례’보다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에게 ‘성령세례’가 먼저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행 10:44-47)

베드로의 설교 도중에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방언을 말했으며 이방인임에도 불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성령세례가 임한 것을 지켜 본 베드로는 저들에게 물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와의 관계는 미묘합니다. 때로는 물세례가 먼저 임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성령세례가 먼저 임하기도 합니다. 물세례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도 틀린 것이며 성령세례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의 순서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세례는 죄 씻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물 속에 잠겨 버립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물세례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이던지 아니면 약간의 물을 뿌리는 세례이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가 우리의 죄 씻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세례는 우리의 영적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세례 역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깨끗함과 정결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 거룩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세례는 억지로 구할 수 없습니다. 물세례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이뤄지지만 성령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베드로는 성령세례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성령세례를 억지로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령세례는 마치 바람과 같이 임합니다.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8)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부음의 삶

기름부음은 성령세례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세례에도 방언이나 예언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름부음에는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성령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크게 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세례에 가려서 성령충만을 무시하거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름부음은 성령세례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름부음을 느꼈어도 내일 또 다시 기름부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기름부음을 오후에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름부음은 많을수록 좋으며 체험할 수

록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능력 때문에 기름부음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기름부음이 능력이기는 하지만 능력 때문에 기름부음을 사모하는 사람에겐 좀처럼 기름부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기름부음을 받기에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기 위해선 세상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은 단순히 몸의 내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을 말합니다. 우리 몸엔 다섯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위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한 점 어두움이 없도록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기름부음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부음의 전부입니다.

육체의 정결을 유지하십시오. 일체의 죄가 없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세상 것에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감정이나 당신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거부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 놓으십시오. 당신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체험은 불가능합니다.

영적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영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는 당신 영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하면 마귀는 사라질 것입니다. 마귀를 선택하면 성령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는 바울의 말과 같습니다. 성령과 마귀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어두운 그림자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체험은 불가능합니다. 100% 성령으로 가득차야만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름부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면 병자가 일어납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영성이 커집니다.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권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부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기름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부음 받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가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집사가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온 성도가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름부음의 삶 유지하기

1.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2. 성령세례와 기름부음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3. 당신은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전이됨을 믿습니까?
4. 당신은 기름부음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29 일

/

기름부음을
유지하는
방법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성도는 나무그릇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금그릇이던지 나무그릇이던지 상관없이 오직 깨끗해야만 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딤후 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그릇이 더럽거나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고귀한 성령님의 기름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기름은 더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더러운 것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릇에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

니다.

그릇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릇에 틈이 있으면 기름은 새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릇에 틈이 있다면 금방 기름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틈'은 곧 마귀에게 허용하는 '틈'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7)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조그마한 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올 것이고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은 곧 새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틈은 생각보다 조그마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듯이 마귀에게 허용되는 틈도 이렇게 하찮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예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남의 좋은 점만 얘기 해야 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고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혀는 그 동안 쌓아 놓은 신뢰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릇에 고인 기름은 썩습니다

한번 받은 기름은 늘 사용하여서 새로운 기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실제로 기름이 고여있으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능력의 기름부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름은 썩고 말 것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은 늘 채워져 있어서 새로운 기름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라고 불리는 호수입니다. 사해의 물이 짜게 된 이유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흘러 들어온 물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지 않으면 물이 짜게 되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나와 그것이 바다를 소성시키겠다고 그곳에 많은 고기가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

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
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
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
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
는 약 재료가 되리라"(겔 47:8-12)

이는 영적 부흥을 말합니다. 생수가 있을지라도 그 생수가 고여
있으면 썩고 말지만 생수가 흐르면 바다를 소성시킵니다.

어떻게 기름을 방출할 수 있습니까?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이(impartation)의 방식이어도 좋고 병을 치
료하는 사역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가지고 있는 기름
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방출입니다. 강이 바다를 소성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들어온 기름을 바다로 흘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바다를 살렸던 것입니다.

기름부음을 유지하는 방법

1.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 그릇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3. 그릇에 고인 기름은 켜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10단계

마귀를 대적하는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모

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는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인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마귀에게 그 어떠한 틈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며 그로 인해 하늘에서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마귀는 자신의 인생이 지옥에 떨어질 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이 땅에 떨어졌는데 저들은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으로써 마귀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악한 영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30 일

/

마귀의
정체알기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늘날의 마귀가 된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꺾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9)

'큰 용'은 곧 '옛 뱀'입니다. 그리고 그 '옛 뱀'은 곧 '마귀'이며 '사단'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리켜 '용(drag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다소 상징적인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짐승인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신화에서 악마를 가리킬 때 주로 '용'이나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어 떨어질 때 그를 따르던 추종자의 세력들도 마귀와 함께

내어 쫓겨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한 언급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계 12:7-8).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교만'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어 같은 위치에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
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14)

마귀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듯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으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무서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남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날마다 커져가는 교만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이사야는 마귀를 가리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사 14:1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별(Morning Star)을 뜻합니다. 이것의 라틴어가 루시퍼(Lucifer)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계명성이라고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계 22:16)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새벽별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새벽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벽별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를 향하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마귀를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

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마귀가 참으로 아름답고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천사였지만 그의 인생은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 로다"(사 14:11)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오게 된 마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귀 스스로 하나님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났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찢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계 12:12)고 마귀의 현재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후

마귀의 최후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붙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 20:2-3)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붙잡아 천년동안 무저갱 속에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잠궈 인봉하고 다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년동안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이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며 분노를 참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마귀는 조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존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잠시 무저갱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는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계 20:7-8)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파하시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계 20:10)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니다. 유향 못에는 마귀 뿐만 아니라 마귀를 섬겨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계 20:10)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삶은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온 천하를 피는 자

마귀는 이 땅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욕'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에 사로잡혀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욕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6)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

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정욕'을 많이 추구하며 성취한 사람들을 가장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욕'을 추구하며 살 때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마귀의 이러한 '정욕'을 통한 유혹은 매우 자극적이며 보기에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당했을 때 그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으며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이처럼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니라"(요 8:44)

누구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는 그 속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그 '욕심'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죄를 짓게 하였을 때 아담은 불사불멸의 몸에서 필사필멸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화된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죽임을 당하도록 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는 그 '정욕'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결국 죄는 사망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추악한 행위를 참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님께 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저들을 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저갱에서 천년동안 지내야 할 것입니다(계 20:1-4).

마귀의 정체 파악하기

1. 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 났습니까? 그와 함께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2. 마귀의 최후는 어떠할까요?
3. 삼위일체하나님의 관계를 훔쳐 낸 마귀는 어떠한 삼위일체를 만들었나요?
4. 짐승의 표는 어떠한 것입니까?



31 일

/

지금은
마귀와의
전쟁이다

마귀의 공격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중 불과 300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전쟁이 끊임없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끊임없는 영적전쟁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인간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절대적인 적은 하나님이시기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계 12:7)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께 패하였으며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김을 받을 때 그를 따르

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고도 하며 온 천하를 꺾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예수님도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아셨
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
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누구보다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때문에 우리 또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이곳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
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

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나라에 속하도록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순식간에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일단 통치자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핍박에 못 이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아래 두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통치자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세계인의 눈을 의식해서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가 몇 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선전용에 불과할 뿐 현재 북한에서의 하나님 숭배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다 발각되면 공개처형을 당합니다.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천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황은 단순히 일본의 전통에 따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사람들에 있어 천황의 위치는 우상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일본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역시 공산

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허락한 교회이지만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자교회의 헌금은 교회 스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설교자까지도 공산당에서 지정한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침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자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교회가 아니고 공산당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한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지역 권세를 장악함으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행 19장 후반부). 이 여신상은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는데 그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 160미터에다가 세로 60미터나 되어 고대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들었는데 저들을 위한 숙식업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많은 수입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은감실을 만들었던 은장색 사람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갔기 때문입니다. 은감실은 은으로 만든 조그마한 아데미 모형을 말합니다. 은세공장이들은 바울로 인해 자신의 수입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도의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역권세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은세공장이들은 마귀의 권세아래 놓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능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전자공학으로 철따라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자만한 쌀이 생산되는가 하면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식물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사람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복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 감에 따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략인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전술은 문화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이전까지 느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향은 대중매체입니다. TV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에 적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가리켜 <바보상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TV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것은 사단이 의도 했던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TV에 공개했던 범죄의 내용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범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는 어린이 채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이 채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괴물이 등장하며 해괴망측하고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

만이 존재합니다. TV가 처음 등장했을 무렵에 보았던 순정만화나 정서적인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뿐이며 사건과 사고를 과장하는 프로만이 인기를 끌 뿐입니다.

TV와 컴퓨터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 와도 자녀들은 인사하지 않습니다. TV를 보거나 게임하기에 열중할 뿐입니다. 모처럼 야외를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게임을 하고 TV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싫던 좋던 간에 집안에 마귀의 세력이 침투해 왔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너무나 조직적이며 그 침투가 너무나 거셉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떠나 살라고 하면 너무나 가혹한 말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요한은 이런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요일 4:5)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입을 열어 세상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살고 잇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기에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 보십시오. 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음악엔 이미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입니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어 너의 비파 소리까지

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
다"(사 14:11)

루시퍼는 비파를 잘 탔던 천상의 음악가였습니다. 비파는 모든
현악기의 근원을 말합니다. 루시퍼는 음악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
을 자신의 권세아래 둘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락(Rock)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계중에는 사단숭배
음악도 끼어 있습니다. 사단숭배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과 평범한
락음악을 함께 들어 보십시오. 두 음악이 거의 같음을 느낄 것입니
다.

마귀의 조직 파악하기

1. 마귀의 네 단계 조직에 대해서 요약해 보세요.
2.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32 일

/

귀신의
활동
파악하기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들

마귀는 매우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삼분의 일이나 되는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조직의 방대함을 볼 수 없기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마귀의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뛰어났는지 그 추종자의 수가 자그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의 삼분의 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계 12:3)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은 '마귀'를 뜻합니다. 4절에는 그 마귀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 중의 삼분의 일이 마귀에 의해 타락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꼬리'는 마귀의 꼬리를 말합니다. 마귀가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을 땅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마귀때문에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이 땅으로 쫓김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은 바 된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이나 되는 무수한 천사들이 마귀에 의해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세 구절 밖에는 안되지만 그 구절 속에는 하늘전쟁의 치열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계 12:7)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영은 없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것은 하늘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을 때 미가엘과 싸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지 않으시고 천사장 미가엘에게 마귀를 대적케 하셨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천군천사들을 대동하여 마귀의 무리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하지만 마귀군대는 미가엘군대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마귀군대가 패배한 후에 더 이상 하늘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땅으로 쫓으셨습니다(계 12:9).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쫓김을 받을 때 그를 추종하던 영들도 함께 쫓으셨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났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마귀와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마귀를 섬기며 마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이 하늘에 있을 때에는 천사로 불려졌지만 마귀를 추종하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천사라고 불리지 못하고 '귀신'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귀신의 역할

귀신은 여전히 마귀와 함께 합니다. 마귀를 추종하였던 하늘의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귀와 뜻을 같이 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의 역할은 마귀의 뜻을 돕는 것입니다. 마귀의 염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때문에 귀신 또

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영(spirit)'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표기되는데 이 <퓨뉴마>는 성령님(holy spirit)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귀신과 성령님의 이름이 모두 똑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퓨뉴마>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만 다릅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모두 똑 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도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사람 이름처럼 '홍길동'이나 '임꺽정'과 같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마다 특화된 전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의 전문적인 역할은 절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귀신의 역할은 자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의 이름은 각 귀신의 역할에 따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부터 '성령님'이라고 불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헬라어 표기는 <하기오스 퓨투마>인데 여기서 언급된 <하기오스>란 단어의 뜻은 '성스러운'입니다. 다시말해 '성령'은 '성스러운 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이름도 '병어리 귀신' 혹은 '귀머거리 귀신'처럼 귀신의 역할에 따라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귀신이 어떠한 특화된 전문적인 역할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귀신인줄 알아야 정확한 축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어리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귀머거리 귀신아, 떠나라!"라고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귀신아 떠나라!"고 선포해야 정확한 대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의 말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육신이 주어질 때입니다. 귀신을 귀신되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육신이 주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영이기때문에 영으로 사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영으로만 존재하면 귀신이 싸울 상대는 영적인 존재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귀신은 육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귀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육신을 갖습니다. 이처럼 귀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될 때 비로소 귀신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처럼 인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육신을 취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마귀의 목적을 달성키 위함입니다. 귀신이 인간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비로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마귀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귀신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이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귀신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기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는 세상을 불순종한 아들들을 양성하는 교육장

소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될 때 불순종한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의 전략대로 세상이라는 그물에 낚여 불순종한 아들이 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귀신이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들어갈 때에 역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헬라어 <에네르게오>인데 이는 '역사하다' 혹은 '일하다'란 뜻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들 속에 들어와 일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일하거나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업가처럼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마귀를 섬기고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가 귀신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귀신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때문에 우리에게도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할 권세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태만하거나 무관심할 경우엔 귀신의 집요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귀신은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귀신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인격이 있듯이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성품이 좋고 나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우리처럼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귀신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있으며 마귀와 밀접하게 영적으로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귀신은 육신이 없는 것만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귀신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 매우 똑똑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지식은 매우 단순하며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또한 귀신의 감정은 어린아이의 것과 같아서 때로는 변덕이 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술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의 속셈이 매우 치사하기도 하고 유치한 것이어서 귀신의 행동을 보면 금방이라도 귀신의 속내음을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의 의지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달리 매우 조잡하며 쉽게 변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심

령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고결하고 헌신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에게는 의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의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처럼 의리가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의 정체 파악하기

1.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2. 귀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 귀신이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4. 귀신의 전문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5. 귀신의 활동 성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6. 귀신이 우리에게 침투하도록 틈을 제공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33 일

/

마귀를 대적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통로를 마귀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결코 마귀는 당신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마귀는 당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holy spirit)께서는 오직 우리의 영과 교류를 나누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는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교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7)

마귀는 항상 틈을 공격합니다. 커다란 구멍을 찾지도 않습니다. 커다란 구멍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커다란 구멍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귀의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그렇다할 흥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마귀는 틈을 찾습니다.

틈은 작은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게 만드는 아주 적절한 틈이 될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엡 4:26)" 마귀는 당신이 화를 낼 때 "얼씨구나~"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화(anger)'를 자제하십시오. 모든 당신의 분노는 마귀에게 당신을 공격할 적절한 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십중팔구 당신의 계획은 세상을 위한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계획을 누가 제공한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당신에게 세상을 좋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당신에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도 틈이 됩니다. 가끔씩 사역자들이 제게 “목사님, 사역을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옵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성령님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납득이 가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벌써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사역자의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쉬다고 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을 통해 마귀로부터 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혈을 뿌려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마귀를 짓

뺏아 버렸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권세도 없고 우리를 제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마귀는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3:8).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0-11)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라"(엡 6:14-17)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

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은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100%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겹'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파쇄하기

1. 마귀의 공격을 파쇄하는 네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2. 무엇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설명해 보세요.
3. 주님의 보혈이 마귀의 공격을 막는 좋은 방법인 이유는 무엇 일까요?
4.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1단계

의의나무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하 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 '의의나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의나무의 삶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입니다.

의의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상처입은 자를 돌보며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악한 세력의 묶임을 풀어주는 일을 행합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의의나무의 삶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삶이며 하나님께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나실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의의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34 일

/

영광의 삶
살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사 43:7).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으뜸되는 삶은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의 삶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사 43:7)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을 보면, “네 백성이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 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먼저 의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영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사 60:22)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사 60:19-20)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영영한 빛이 되며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는 복에 놀랍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

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오직 의인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에게 빛이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빛은 무엇이며 그 빛을 어떻게 발산할 수 있을까요?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와 영광을 체험할 때 생겨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세상의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 하더라”(요 1:4-5)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 안으로 빛이 들어 왔지만 그 어두움은 빛이 오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 왔으므로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이 전해 옵니다. 성경은,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6)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에겐 빛이 임하게 될 것이며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우리는 이전에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세상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을 지성소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이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둘로 가르셨습니다. 일년에 단 하루 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일년 중 7월 10일 하루만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날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히 9:7)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친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어둠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도 예수의 기이한 빛을 얻게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삶 이해하기

1.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5 일

/

영적 예배자의
삶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영적예배는 이런 예배를 말합니다. 첫째, 영적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여서는 안됩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예배여서도 안됩니다. 둘째, 영적예배는 거룩한 제사여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는 죄가 없는 예배입니다. 온전히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적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예배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난 날에 아무리 열심히 헌신했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예배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영적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는 육적 예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이고 육적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만 육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러운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는 살아 있지만 육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는 죽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육적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 하나는 사울왕입니다. 육적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서 성령을 제하셨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삼상 16:14)

육적예배의 최후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 예배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는 영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거하게 되지만 반대로 사탄을 선택하게 되면 사탄의 영이 그 육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
랴"(롬 7:17-24)

바울이 깨달은 법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걸쳐 이 '영적 전쟁'을 하였고 승리
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영적전쟁
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받는 길
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내 영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
나님의 것을 받아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과 육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
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영으로 드러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
다. 육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
배를 드린다는 것에 많은 혼돈과 오해를 가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육체가 가는 곳에는 영도 함께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담을 그릇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 없는 영은 거할 곳이 없지만 영이 없는 육체는 죽음 뿐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살 먹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눅 8:54-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영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전에 그 아이의 육신 속에 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영이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27:50). 이처럼 우리 인간의 영은 육체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육체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갑니다. 육체가 술집에 가면 영도 함께 술집에 갑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영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예배의 삶 이해하기

1. 우리가 드릴 영적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2. 영적전쟁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6 일

/

믿음의 삶
살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얼마 못 가서 기도의 문을 닫고 마는 것은 응답이 곧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열심히 정진했어도 얼마 못 가서 포기 하고 마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 1:6-8)

위 구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뭔가를 구하고서 그것이 이뤄질 것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구절은 두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선언하심을 보게 합니다.

‘믿음’과 ‘의심’에 이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두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의심할 것을 작정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완벽한 시간낭비고 부질없는 아우성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의심’이라는 고약한 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오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예 주인과 나란히 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이대로 놔두면 아마 이 ‘의심’이라는 놈은 주인인 ‘믿음’까지 밖으로 내 쫓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의심’이 나란히 있는 것을 가리켜 ‘두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의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과 함께 의심이 있으면 아무 것도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어질 것이 없으니 처음부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연히 시간낭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마음을 가리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흔들리는 바다 물결을 말합니다. 바다

물결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물결은 항상 흔들림이 있습니다. 호수 같이 조용히 있어야 그 마음이 정한 것이지요.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깊이가 낮은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그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후 6:14-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운 법칙 중에 그 한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엔 짝이 있고 함께 공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함께 공존할 수

없고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와 불법이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마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불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다른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과 물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를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章)”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장성해 지고 나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

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내 사래 역시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2-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못 별을 보여 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하인이었던 미갈에게서 아들을 하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못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 준 때로부터 13년 이상이 지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었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6-19)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 볼일 없는 시원찮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을 일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

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 4:18-22)

99세의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늙어 더 이상 정자가 생산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이라고 말합니다. 태가 죽어 더 이상 그 태에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믿음입니다. 저들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십시오.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들어 갈 틈도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흔치 않습니다.

분명히 99세 이전까지만 해도 의심 많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음을 지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의 저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당신은 아브라함의 별볼일 없었던 믿음처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오래도록 별 볼일 없는 그였지만 어느 순간에 거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지금 책을 놓고 그 결심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 믿음은 그렇게 될지어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살기

1. 당신에게 혹 '두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2.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3. 믿음은 어떤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4.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일까요?

12단계

사역자의 삶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토록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백성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요 14:12).

예수님처럼 사역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행 10:38).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처럼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막 16:17-18).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마 10:1).



37 일

/

사역자의
삶
이해하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택하실 때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마음에 정하신 사역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은 구원받는 성도를 뜻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역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으신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선지자와 같은 사역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사역자의 길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역자였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신 34:10)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으며 정치적으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왕비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광야로 내 몰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사역자로서의 준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듯 낮아지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하

나눔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낮아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그토록 낮아짐을 경험케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건너고 있는 고통의 다리를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 마련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통의 다리가 너무 길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을 만나시려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처럼 거부합니다. 한결같이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갑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신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이유는 자신의 콤플렉스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학력 때문에 꺼려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투리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서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콤플렉스를 덮어주시고 극복케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연단이 길어지는 이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모세는 영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뺄 때까지 뺍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 못해요"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뺄 곳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속사람의 모든 것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나 못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자신의 속사람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첫번째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

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처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역자의 갖춰야 할 점

사역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치유자입니다(민 12:6).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역자이며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사용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음성과 환상이 안 열려 있다고 해서 사역자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역자의 길을 사모하며 달려갈 때 음성과 환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나쁜 짓을 했더라

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힘들고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역자의 삶 살기

1. 이 땅의 모든 사역자(목회자, 선교사 등)는 누가 불렀습니까?
2. 당신은 누가 선택하여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3. 왜 사역자들이 연단과 고난이 많은 것일까요? 왜 그들의 연단이 길어지는 것일까요?
4. 사역자가 갖춰야 할 은사는 무엇입니까?



38 일

/

교회의 질서
따르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는 오히려 일반교회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거나 서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각자가 제 갈 길로 가는 식의 교회운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서로 다른 교단이 생기고 그 교단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교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교회는 사실상 하나의 교회입니다.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여야 하며, 교파가 다를지

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곧 성전이며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성전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 1:23)

바울은 교회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은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몸을 만들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죄에 빠져 살아가거나 악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몸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지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각 성도는 각자의 기질과 성품과 능력에 따라 몸의 각자 다른 지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주님의 몸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의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시험에 빠져 낙심하게 될 때에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빨리 상처 난 부위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싸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상처라면 쉽게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가뭇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음란 죄에 빠지게 되거나 도박에 빠진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된다면 이것은 몸에 종기가 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나면 예전에는 ‘고약’을 붙였습니다. 한 동안 붙인 고약을 떼어 내면 종기의 뿌리가 고약에 달라 붙어 빠져 나옴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엔 몸에 구멍이 뚫히니 뚫려 있기도 합니다. 종기의 뿌리가 뽑아져 나오면 일반 상처처럼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른 후 붕대로 감싸주면 곧 낫습니다.

이처럼 종기의 뿌리를 뽑아 내는 것은 음란 죄나 도박죄같이 심각한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듯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 음란의 죄가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도박의 영이 교인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은 말끔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암같이 강력한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의 몸도 큰 상처를 입

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죽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암세포는 원래 일반 세포와 똑같은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세포로 돌아선 것입니다. 암 세포는 정상적인 조절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증식만을 고집하는 세포입니다. 암 세포가 일반 세포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 멋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제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의 몸은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해야만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몸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끌어가고자 할 때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몸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에 순종하며 따르는 반면에 암세포는 세워진 질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증식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에는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암세포가 많이 모이게 되면 암 덩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암 세포가 있거나 암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암 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암 세포가 자극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되면 온 몸에 퍼지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문제가 활동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사건이 발단하면 활동하지 않고 있던 문제들이 바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문

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암 세포를 자극시키는 것은 분노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스트레스’입니다. 누군가 뺨을 치면 그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가져가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분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무조건 대듭니다. 그 사람이 옳은지 자신이 그릇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못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던 암 세포를 자극해서 암 세포를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조용히 있는 암 세포가 활동하는 암 세포로 바뀔 때 다시 한번 활동하는 암 세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암인자’라는 특유의 면역세포를 준비 하셨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방어진’이라고 할까요. 항암인자의 말을 암 세포가 잘 들으면 활동을 멈추고 다시 조용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또한 조용히 있던 암 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항암인자’는 ‘회개’입니다. 성도가 회개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정상적인 몸으로 변형됩니다. 잘못된 습관과 더러운 인격 등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회개’와 ‘보혈’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도로 변하게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과 눈물의 ‘회개’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못된 성격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았던 못된 본성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한 줄기 치유의 광선이 병든 사람의 영혼에 내리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럽고 추악한 세포들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곤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암 세포

교회에 이러한 암 세포가 있으면 안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는 모두 암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암 세포와 같은 성도는 자기 뜻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못 말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교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교만을 사랑했으며 교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교만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14)

루시퍼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위대한 자리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정죄함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칭호를 뒤로한 채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씀하셨듯이 루시퍼는 그의 교만 때문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지옥 불에 떨어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암 세포는 루시퍼와 같은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을 좋아하면 루시퍼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당신의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루시퍼를 따른 천상의 천사들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꺾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9)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쫓았던 그의 사자들이 얼마쯤 되는지는 다음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

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계 12:3-4)

마귀가 하늘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한 후에 땅에 떨어질 때 자신과 함께 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무려 그 수가 하늘 천사의 삼분의 일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꺾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때 마귀의 세력은 우리 앞에 꿈쩍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교회 내에 암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교만을 심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교만’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처럼 ‘타락’하게 될 것이고 ‘멸망’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따르기

1.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성도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몸과 비교해서 설명해 봅시다.
3. 교회 내의 암세포는 어떤 성도일까요?
4. 사람의 몸 안에 질서가 필요하듯이 교회에서 필요한 질서는 무엇일까요?
5.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9 일

/

영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첫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은 영어로 보면 단순한 <spirit>입니다. 헬라어로 <프뉴마>인데 이것은 성령을 포함해서 모든 영들에 대한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이곳에 쓰인 <신령>이라는 말도 <프뉴마>입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에 대해 사용될 때에도 같은 <프뉴마>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귀신들도 다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구절 중에서 하나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 10:1)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프뉴마>입

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 읽을 때 볼 수 있는 단어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이든지 악한 영에 대한 단어는 전부 <프뉴마>입니다. 단지 그 영이 어떤 영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영(프뉴마)’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일 뿐입니다.

<성령>님을 사용할 때 ‘성(하기오스)’과 ‘영(프뉴마)’를 붙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스럽다는 뜻의 <하기오스>와 영이라는 뜻의 <프뉴마>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에 사용될 때에는 항상 <더러운>이나 <악한> 혹은 <병어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영>이라고만 표기해 있다면 그 <영>이 어떤 영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맥을 통해서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알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수식어를 함께 상용하여 그 <영>이 어떤 <영>을 뜻하는지 알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요한이 언급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한 사도요한의 뜻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이셨으며(창 3:8),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출 33:23). 사도요한은 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며(계 4:3)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사람 같다(겔 1:28)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영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육적으로 드리지 않듯이 하나님을 육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눈으로는 결코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영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육적인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런 조잡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정의의 단계를 높여주는 심리학이나 어떤 수준 높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영으로 이해되는 책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들은 혼(mind)의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영으로만 이해 되도록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1장이 가장 적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1장의 어느 한 부분을 읽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
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
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
라”(막 11:23~24)

만약에 이 구절을 육(body)적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 말씀을 가짜로 취급할 것입니다. 혼(mind)적으로 읽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글쎄,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spirit)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구절이지만 육(body)적으로 읽는 사람과 혼(mind)적으로 읽는 사람이 다르고 영(spirit)적으로 읽는 사람이 다른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을 잘 알고 지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

다. 우리는 방송매체와 책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수십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한번을 읽어도 그것이 영적으로 읽었다면 수십 번 읽은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의 능력을 개발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
니라”(고전 2:9~10)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는 모두 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도 세 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도 세 분의 하
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으로 사십시오. 그것
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결’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를 드리십시
오. 우리는 이것을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곧 ‘성령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
셨음이라”(행 10:38)

영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성

경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영으로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영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영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1.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2.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할 수 있을까요?
4.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동행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40 일

/

구제의 삶
이해하기

구제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금식, 기도,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삼았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 중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기원후 70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히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서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구제는 변함없이 행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구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고 말하면서 구제는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구제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딤후 5:10)

또한 바울은 구제를 행할 때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

구제의 효력

이방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는 그가 구제를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방문한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행 10:31)라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행함을 보시고 고넬료를 구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구제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구제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였기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행 9:36)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 12:33)고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풍성히 쌓이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고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잠 28:27).

모든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백성을 구제하셨습니다. 생명수교회도 예수님의 기본 사역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근간 사역은 예배, 선교와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선교를 통해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구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제하심에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 또한 구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구제를 행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제는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구제하는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보다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면 하나님도 감추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 구제의 손길을 내밀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주님은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고 구제의 축복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후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구제의 삶 살기

1. 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2. 구제의 효력은 어떠한가?

3. 모든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40일 주님의 신부수업

퍼 낸 날 2016. 2. 10

지 은 이 이다윗

퍼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 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학회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사교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의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 버전 있음)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